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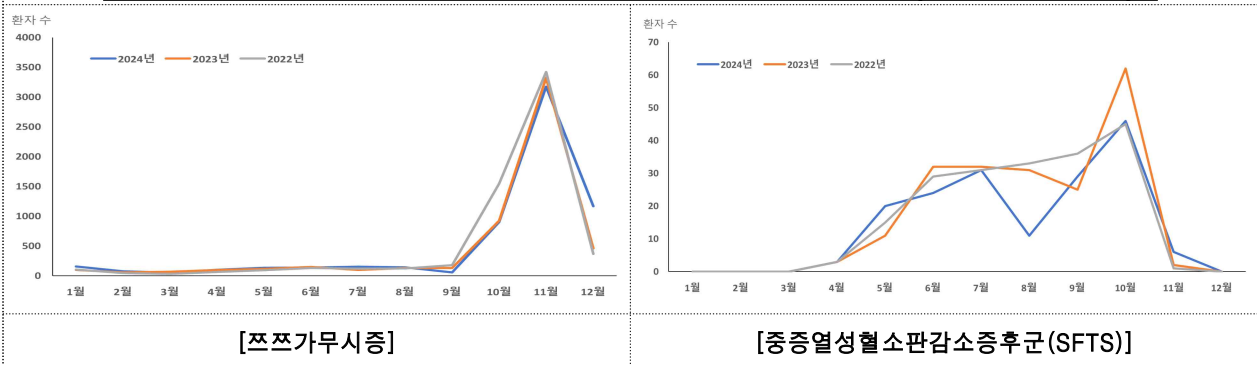
추석 연휴 성묘·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

- 9~11월은 진드기매개감염병(쯔쯔가무시증, SFTS 등) 환자 발생 집중,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당부
- 추석 연휴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
- 야외활동 후 발열, 구토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·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‘쯔쯔가무시증’과 ‘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, 이하 SFTS)’이며,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.3%가 가을철(9~11월)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.

<최근 3년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월별 발생 현황(2022~2024년)>



<2025년 진드기매개감염병 월별 환자 현황>

(단위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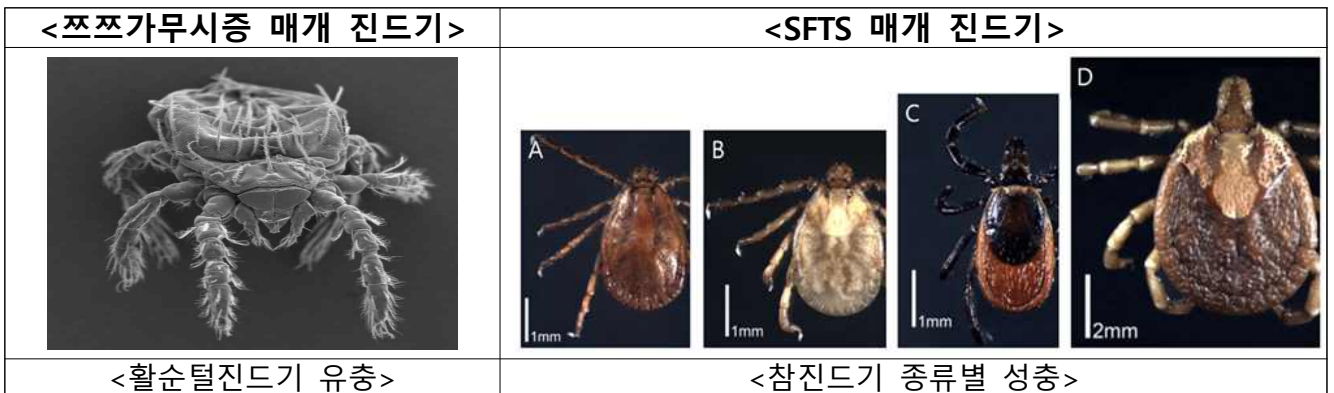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합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
|----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쯔쯔가무시증 | 202 | 20 | 5 | 8 | 24 | 45 | 44 | 29 | 27 |
| SFTS | 167 | 0 | 0 | 0 | 5 | 29 | 50 | 48 | 35 |

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~11월에 많이 발생하며,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(963명) 대비 79.0% 감소하였다.

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(잠복기) 고열,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, 가피(검은 딱지)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.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,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SFTS 환자는 주로 4~11월에 많이 발생하며,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, 전년 동기간(89명) 대비 87.6% 증가하였다.

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, 진드기에 물린 후 5~14일(잠복기)이 지나 고열,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.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18.5%로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.



2024년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6,438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, 주요 감염위험요인은 농림축산업 활동(텃밭 포함)이 59.0%, 제조작업이 4.0%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약 63.0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.

<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의 감염위험요인(2024년 기준)>

(단위: 명, %)

| 구 분 | 발생현황(명) | 주요 감염위험요인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제조작업 | 농림축산업 활동(텃밭포함) |
| 합 계 | 6,438 | 259(4.0) | 3,798(59.0) |
| 쯔쯔가무시증 | 6,268 | 225(3.6) | 3,675(58.6) |
| SFTS | 170 | 34(20.0) | 123(72.4) |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, 제초활동(성묘 및 벌초),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옷 입고 기피제 사용하며,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당부하였다.

또한, “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, 구토,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묘 및 벌초,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

<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>

- 농작업 및 야외활동 전
 -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
 -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* 착용하기
 - * 밝은 색 긴팔·긴바지, 모자, 목수건, 토시, 장갑, 양말, 장화
 -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 -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
-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
 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 - 돛자리를 펴서 앉고,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 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
 -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
-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
 -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, 샤워나 목욕하기
 -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허리, 무릎 뒤,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

- <붙임> 1. 진드기매개감염병 개요
 2. 진드기매개감염병 연령별 환자 발생 현황
 3. 진드기매개감염병 주요 매개체 감시 현황
 4.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 홍보 리플릿(대국민용)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종희 (043-719-7160) |
| | | 담당자 | 보건연구관 | 권정란 (043-719-7162) |
| | | | 역학조사관 | 남호진 (043-719-7168) |
| 담당 부서 <협조> | 감염병진단국 매개체분석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희일 (043-719-8560) |
| | | 담당자 | 보건연구관 | 주정원 (043-719-8521) |



붙임 1 진드기매개감염병 개요

□ 쯤쯤가무시증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|---|
| 정 의 | □ 쯤쯤가무시균(<i>Orientia tsutsugamushi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|
| 질병 분류 | □ 제3급 법정감염병 |
| 병 원 체 | □ <i>Rickettsiaceae</i> 과 <i>Orientia tsutsugamushi</i> - Rickettsia(리케치아)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,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는 특징 - 다양한 혈청형: 국내에서는 Boryong형, Karp형, Gilliam형 등이 존재 |
| 매 개 체 | □ 털진드기 유충 - 주요 매개체: 대요털진드기(<i>Leptotrombidium pallidum</i>), 활순털진드기(<i>L. scutellare</i>) |
| 감염 경로 | □ 쯤쯤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사람이 물려 감염 (주로 경작지 주변의 풀숲 및 관목 숲에 분포) □ 사람 간 전파 없음 |
| 잠 복 기 | 10~12월 |
| 호발 시기 | 50대 이상 |
| 호발 대상 | 10일 이내 |
| 임상 증상 | □ 전신적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- 주요 증상: 발열, 가피(eschar), 반점상 발진, 림프절종대 - 심한 두통, 발열,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- 발병 3~7일 후 몸통·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~2주일 후 소실 -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비대를 보임 □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(진단에 중요) - 사타구니/생식기, 겨드랑이, 오금 등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됨 □ 소화기, 호흡기,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|
| 진 단 | □ 검체(혈액, 조직, 가피)에서 <i>O. tsutsugamushi</i> 분리 동정 □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□ 검체(혈액, 조직, 가피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|
| 치 명 륜 | □ 독시사이클린, 아지스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 치료 |
| 치 료 | □ 0.1~0.3%(2011~2023년 국내 누적치명률 0.17%) |
| 환자 관리 | □ 환자격리·접촉자격리: 필요 없음 |
| 예 방 | □ 위험환경노출 회피: 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-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, 옷을 벗어두지 않기 - 작업 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,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신기 -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, 작업복, 속옷, 양말 등을 세탁하기 |

□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|---|
| 정 의 | □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(<i>bandavirus dabiense</i>) 감염에 의한 질환 |
| 질병 분류 | □ 제3급 법정감염병 |
| 병 원 체 | □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(<i>Phenuiviridae</i> 과 <i>Bandavirus</i> 속에 속함) |
| 매 개 체 | □ 주요매개체: 작은소피참진드기(<i>Haemaphysalis longicornis</i>), 개피참진드기(<i>Haemaphysalis flava</i>), 뭇뚝참진드기(<i>Amblyomma testudinarium</i>), 일본참진드기(<i>Ixodes nipponensis</i>) 등 |
| 감염 경로 | □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사람 간 전파 보고: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·간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|
| 잠 복 기 | □ 5~14일 |
| 호발 시기 | □ 4~11월 |
| 호발 대상 | □ 주로 50대 이상 |
| 임상 증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주증상은 고열(38°C이상)과 위장관계 증상(오심·구토, 설사, 식욕부진 등) □ 출혈성 소인,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혈소판·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(혈뇨, 혈변 등) 발생 - 피로감, 근육통, 말어눌·경련·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-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□ 주요 검사소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- 혈청효소 이상 : AST, ALT, LDH, CK 상승 |
| 진 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검체(혈액)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분리 □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□ 검체(혈액)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□ 검체(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|
| 치 명 륜 | □ 12~47% 정도(2013~2024년 국내 누적치명률 18.5%) |
| 치 료 | □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|
| 환자 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환자 관리 : 격리 필요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: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□ 접촉자 관리 : 격리 필요 없음 |
| 예 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□ 야외활동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, 눕지 않기,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- 돛자리 사용,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-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□ 야외활동 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옷을 털고 세탁하기, 샤워·목욕하기 -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□ 환자/감염동물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·간접적 노출 주의 |

붙임 2 진드기매개감염병 연령별 환자 발생 현황

□ (쯔쯔가무시증) 대부분 환자는 50세 이상(88.7%)에서 주로 발생

<쯔쯔가무시증 연도별·연령별 환자 발생 수>

(단위: 명)

| 연도 | 쯔쯔가무시증 연령별 환자 발생 수 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계 | 10세미만 | 10-19세 | 20-29세 | 30-39세 | 40-49세 | 50-59세 | 60-69세 | 70세이상 |
| 계 | 61,068 | 370 | 426 | 1,120 | 1,586 | 3,385 | 10,054 | 17,000 | 27,127 |
| 2016 | 11,105 | 77 | 108 | 276 | 401 | 839 | 2,305 | 2,979 | 4,120 |
| 2017 | 10,528 | 89 | 95 | 217 | 325 | 754 | 2,130 | 2,803 | 4,115 |
| 2018 | 6,668 | 50 | 57 | 138 | 189 | 453 | 1,199 | 1,794 | 2,788 |
| 2019 | 4,005 | 24 | 28 | 80 | 123 | 237 | 639 | 1,081 | 1,793 |
| 2020 | 4,479 | 38 | 29 | 88 | 104 | 231 | 673 | 1,250 | 2,066 |
| 2021 | 5,915 | 32 | 34 | 98 | 126 | 256 | 851 | 1,705 | 2,813 |
| 2022 | 6,235 | 23 | 25 | 73 | 126 | 234 | 829 | 1,755 | 3,170 |
| 2023 | 5,663 | 15 | 25 | 70 | 102 | 197 | 630 | 1,617 | 3,007 |
| 2024 | 6,268 | 20 | 24 | 75 | 87 | 179 | 779 | 1,977 | 3,127 |
| 2025 | 202 | 2 | 1 | 5 | 3 | 5 | 19 | 39 | 128 |

* 2025년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는 잠정통계임

□ (SFTS) 대부분 환자는 50세 이상(92.8%)에서 주로 발생

<SFTS 연도별·연령별 환자 발생 수>

(단위: 명)

| 연도 | SFTS 연령별 환자 발생 수 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계 | 10세미만 | 10-19세 | 20-29세 | 30-39세 | 40-49세 | 50-59세 | 60-69세 | 70세이상 |
| 계 | 2062 | 1 | 3 | 28 | 40 | 77 | 368 | 579 | 966 |
| 2016 | 165 | 0 | 0 | 3 | 2 | 10 | 38 | 41 | 71 |
| 2017 | 272 | 0 | 2 | 2 | 5 | 10 | 65 | 77 | 111 |
| 2018 | 259 | 0 | 1 | 3 | 4 | 18 | 50 | 68 | 115 |
| 2019 | 223 | 1 | 0 | 3 | 3 | 9 | 41 | 63 | 103 |
| 2020 | 243 | 0 | 0 | 7 | 11 | 5 | 46 | 59 | 115 |
| 2021 | 172 | 0 | 0 | 1 | 3 | 5 | 32 | 52 | 79 |
| 2022 | 193 | 0 | 0 | 1 | 4 | 6 | 32 | 53 | 97 |
| 2023 | 198 | 0 | 0 | 2 | 3 | 3 | 28 | 67 | 95 |
| 2024 | 170 | 0 | 0 | 3 | 3 | 4 | 17 | 58 | 85 |
| 2025 | 167 | 0 | 0 | 3 | 2 | 7 | 19 | 41 | 9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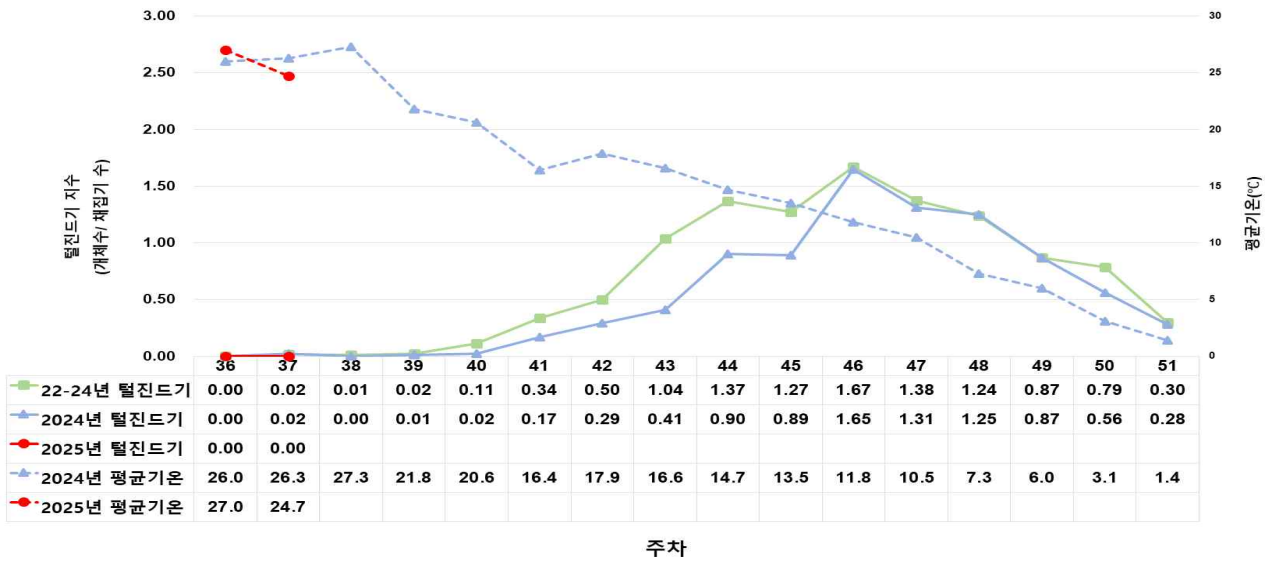
* 2025년 SFTS 환자 수는 잠정통계임

붙임 3 진드기매개감염병 주요 매개체 감시 현황

- 찌찌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분포는 남부 지방은 활순털진드기, 중부 및 북부지방은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함
- 주로 9월 하순 발생 시작, 10월 말에서 11월 초 최대 증가 추세

<주차별 털진드기 지수*와 평균기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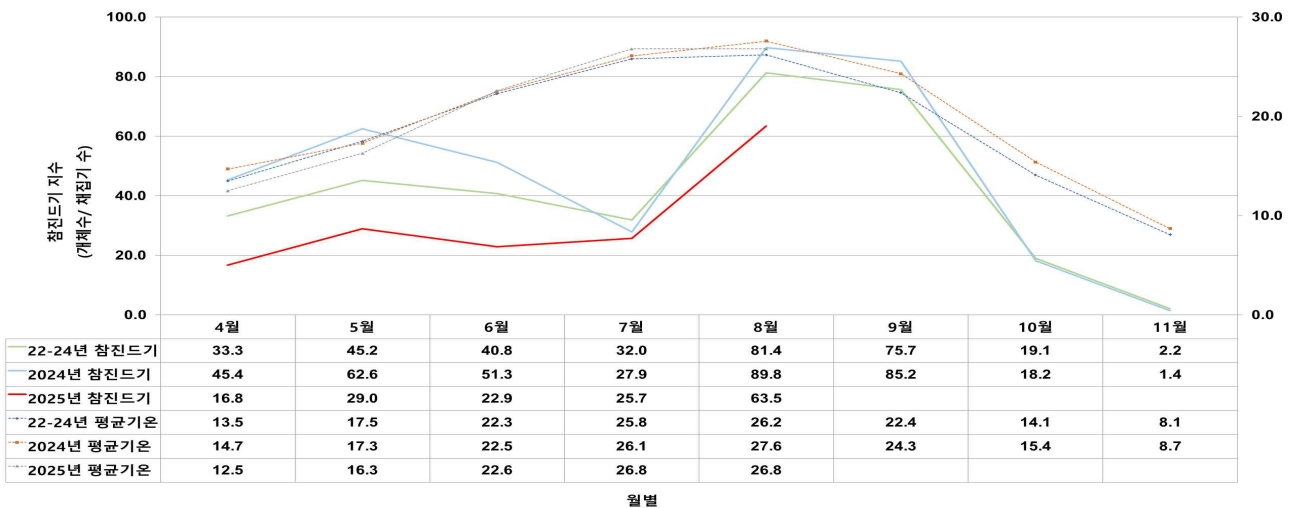
*털진드기 지수 =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(개체수/트랩수)



- 중증열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봄(4~5월)에 활동 시작, 가을철(9~11월)에 많이 발생함

<월별 참진드기 지수>

*참진드기 지수 = 하루 동안 1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참진드기 평균 개체수(개체수/채집기수)



붙임 4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(대국민용)

진드기 매개 감염병!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

예방 1 옷 제대로 입고



예방 2 기피제 뿌리고



예방 3 풀숲 피하고



예방 4 털고, 씻고, 빨래하고



3GO!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!

관리 1 증상 살펴보고!



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!



관리 3 빨리 치료하고!



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?

-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.
* 프록시마시증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, 라임병 등
-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, 등산, 나물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.
- 발열, 근육통, 설사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

